

Nature, Our Future!

- 자연, 우리의 미래

오대산국립공원

천년 역사의 자취를 찾아서

오대산 역사, 문화



오대산에 관하여.....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힘차게 내달려 우리 국토의 뼈대를 이루는 백두대간(白頭大幹) 중심에 날카롭지 않고 둥글면서도 그윽한 향기를 가진 채 넉넉하게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후덕한 산, 오대산이 있다.

1975년 2월 1일 우리나라 1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오대산은 한반도 중동부, 태백산맥과 차령산맥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행정구역상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홍천군에 걸쳐 있고, 그 면적은 303.929km²에 달하여 비로봉(1,563m), 동대산, 두로봉, 상왕봉, 호령봉 등 다섯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으며, 동쪽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노인봉 아래로는 천하의 절경 소금강이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오대산은 설악산이 날카로운 기암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장쾌하면서도 노년(老年)의 듬직한 육산(肉山)이며 모산(母山)이기도하다. 오대산이라는 명칭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과 산의 형세가 흡사하여 오대산이라 불렀다고 하며, 소금강은 이율곡 선생께서 노인봉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펼쳐진 기암들의 모습이 금강산을 축소한 듯 아름답다하여 이름 붙여진 작은 금강산이라는 뜻의 소금강으로 불리우고 있다.

오대산은 월정지구와 소금강지구로 나뉘는데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비로봉 정상에서 볼 때 동대 너머의 청학산 쪽 소금강지구는 바위산으로서 금강산에 견줄 만한 절경이며, 비로봉에서 평창 쪽으로 내려가는 월정지구는 부드러운 흙산으로서 산수가 아름답고 불교문화유적이 많다. **호명골, 중대골, 서대골, 신선골, 동피골, 조개골** 등의 계곡물이 만나 시작되는 오대천은 동대천과 합류하면서 정선을 지나 남한강으로 굽이 굽이 흘러든다. 무려 32개의 산봉우리와 31개의 계곡, 12개의 폭포를 품고 있는 오대산은 뛰어난 자연림을 자랑하며, 신선초(산마늘)와 같은 희귀식물을 비롯하여 수백 종의 식물과 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오대산은 봄에는 온통 꽃동산으로,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울창한 계곡과 숲으로, 가을에는 오색의 단풍으로, 겨울에는 설화를 피워내는 설경으로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오대산은 **신라 자장율사**가 오대산을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사는 산으로 믿은 뒤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교성지로서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또 김시습이나 함무 외, 허목과 같은 빼어난 문인과 도가적인 취향을 가진 이들도 오대산을 거쳐 갔다. 조선후기의 율곡 이이(李珣)와 이중환(李重煥)은 오대산을 삼재가 들지 않는 곳으로 우리나라 12대 명산의 하나로 손꼽았다.

한편, 오대산에 있는 우통수는 일찍이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서 밝혔듯이 한강의 발원지이다.

오대산은 이처럼 그 모습 그 무게만큼 우리 역사 속에서 오만 보살이 상주하는 불교의 성지로, 문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왔다.

오늘도 후덕한 오대산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살고 계시는 지혜의 산이다.

◆ 국립공원 탐방서비스현장 ◆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의 여가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공원관리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국립공원내 다양한 야생동물과 수려한 자연경관, 유구한 문화유적 등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유지 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공원마다 특징있는 탐방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공원관리를 실제 경험하고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국민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 국립공원 탐방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풍부한 영상과 학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탐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탐방서비스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공원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목 차 -

I. 월정사	1~2
1. 적광전	3
1-1. 심우도	4~5
2. 수광전	6
3. 삼성각	
4. 조사당	7
5. 진영당	
6. 설선당(종무소)	8
7. 대강당	
8. 범종루	9
9. 용금루	10
10. 성보박물관	
11-1. 금강루	11
11-2. 윤장대	12
12. 호지각(화장실)	13
13. 심검당	
14. 해행당	
15. 대법륜전(공양채)	
16. 청류다원	
17. 천왕문	14
18. 일주문	15
19. 팔각구층석탑	16

20. 석조보살좌상	· · · · ·	17
21. 수각(불유각)	· · · · ·	18
22. 요사채(세면장)		
23. 전나무숲		
Ⅱ-1. 상원사	· · · · ·	19~20
Ⅱ-2. 상원사 문화재		
1. 상원사 동종	· · · · ·	21
2-1. 문수동자상	· · · · ·	22
2-2. 세조와 문수보살 이야기	· · · · ·	23
3. 고양이 석상	· · · · ·	24
4. 영산전탑		
5. 관대걸이		
6. 상원사 부도		
Ⅲ. 암자	· · · · ·	25
1. 동대 관음암	· · · · ·	26
2. 서대 염불암	· · · · ·	27
3. 남대 지장암		
4. 북대 상두암(미륵암)	· · · · ·	28
5. 중대 사자암	· · · · ·	29
6. 적멸보궁		
7. 영감사와 사고	· · · · ·	30
8. 육수암		

I. 월정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동대 만월산을 뒤로 하고, 그 만월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고요하게 들어앉아 사철 푸른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띤다. 그 앞으로는, 맑고 시린 물에서 열목어가 헤엄치는 금강연이 또한 빼어난 경관을 그리며 흐르고 있다. 월정사를 품고 있는 오대산은 자연 조건이며 풍광이 빼어날 뿐더러 예로부터 오만보살이 상주하는 불교성지로서 신성시 되어 왔다. 그 오대산의 중심 사찰로서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1400여 년 동안, 개산조 자장율사에서부터 근대의 한암, 탄허스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름난 선지식들이 머물던 곳이라니와, 월정사는 오늘날에도 하늘을 향해 쪽쪽 뻗은 이 곳 전나무 숲의 그 곧음과 푸름으로 승가(僧伽)의 얼을 오롯이 지키고 있는 한국 불교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월정사는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니, 그 때가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이었다.

636년,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을 친견한 자장율사는 “너희 나라 동북방에는 일만의 내가 상주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다시 나를 친견하라”는 계송을 문수로부터 듣고 신라에 돌아오자 마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오대산에 들어가 임시로 초가를 짓고 머물면서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정진하였다. 그러나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하고 태백 정암사에 들어가 입적하게 된다. 비록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하는 뜻은 끝내 이루지 못했으나 이로부터 월정사는 오대산 깊은 계곡에 터를 잡게 되었다.

그 뒤로 유등보살(석가모니가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할 때 연등불(燃燈佛)께 공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의 이름)의 화신이라고 전해지는 신호거사와 범일대사의 제자 두타승 신의스님이 자장율사가 초가를 지었던 터에 다시 암자를 짓고 살았다. 신의스님 이후로 오랫동안 황폐한 채로 남아 있던 이 암자는 수다사水多寺(진부면 수향리에 있던 절로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의 장로 유연스님이 새로 암자를 짓고 살면서 비로소 절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고 그 뒤로 차츰 규모가 커졌다. 그 무렵의 월정사는 금당 뒤쪽이 바로 산인 특수한 산지 가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금당 앞에 탑이 있고 그 옆에 강당 등의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남북자오선(南北子午線) 위에 일직선으로 중문, 탑, 금당, 강당 등을 세운 신라시대의 일반적인 가람 배치와는 다르다.

그 뒤로 고려 충렬왕 33년(1377)에 화재로 모두 타버린 것을 이일스님이 중창하고 조선시대까지 계속 범등을 밝혀왔는데 조선 순조 33년(1833)에 또다시 큰 화재를 입고 말았다.

그런지 11년 뒤인 헌종 10년(1844)에 이르러 영담, 정암 스님 같은 분이 앞장서서 중건하여 큰 사찰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였다. 1911년에는 전국 31본산의 가운데 하나가 되어 강원도 남부의 사찰을 총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역사를 간직해 오던 월정사는 1950년 6. 25 전쟁의 참화로 칠불보전(七佛寶殿)을 비롯하여 영산전, 광웅전, 진영각 등 17동 건물이 모두 불타고 소장 문화재와 사료들도 모두 재가 되어버린 비운을 맞이했다. 지금의 월정사는 1964년 탄허스님이 적광전을 중건하고 그 뒤로 만화스님과 현해스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건하여 이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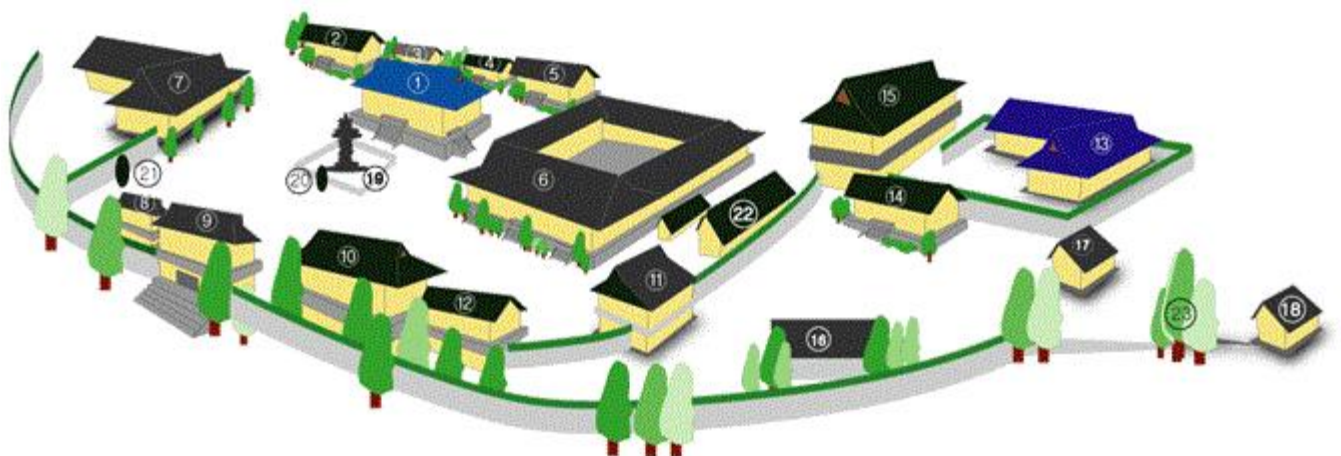
그리하여 어엿한 대가람의 모습을 되찾게 된 월정사는 비록 몇 차례 화재와 전화로 많은 성물(聖物)과 문화재를 잃긴 하였으나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당우들이며 국보로 지정된 팔각구층석탑을 비롯하여 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다.

월정사 이름 유래

월정사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록이나 자료가 없는 까닭에 의견이 분분하다.

월정사가 있는 자리가 달의 형국을 이루기 때문에 월정사라고 했다는 의견도 있고, 동대 만월산의 '월月'과 서대 장령산 아래 세운 수정암의 '정情'이 합쳐져 뒷날 월정사가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월정사 전각 안내도



- | | | | | | |
|-------------|---------------|----------------|-------------|-----------|--------------|
| 01. 적광전 | 02. 수광전(무량수전) | 03. 삼성각 | 04. 조사당 | 05. 진영당 | 06. 설선당(종무소) |
| 07. 대강당(서당) | 08. 범종루/석경원 | 09. 용금루(상설전시장) | 10. 성보박물관 | 11. 금강루 | 12. 호지각/화장실 |
| 13. 심검당 | 14. 해행당 | 15. 대법륜전/공양처 | 16. 청류다원 | 17. 사천왕문 | 18. 일주문 |
| 19. 팔각구층석탑 | 20. 석조보살좌상 | 21. 수각 | 22. 오사체/세면장 | 23. 전나무숲길 | |

1. 적광전



팔각구층석탑 뒤에 만월산 자락의 한 기운이 영긴 곳에 자리한 적광전은 정면 다섯 칸, 측면 네 칸의 매우 큰 법당으로, 팔작지붕에 다포계 양식으로 세워졌으며 갖가지 문양이 어우러진 단청은 매우 화려하다.

적광전 외부기둥 18개 중 16개는 오대산에서 자생하는 소나무이고 2개는 괴목이며, 내부기둥 10개는 오대산에서 자생하는 진나무로 만들었다.

1930년대 **조선고적도보**에 의하면 과거 7불을 모신 **칠불보전(七佛寶殿)**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6.25 전쟁 때 아군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1964년 탄허스님의 오대산수도원을 기념하기 위해 결사의 주 경전이었던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신다는 의미로 적광전으로 고쳐 현판을 달았다. 이후 1968년에 만화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 다시 중건되었다.

대체로 적광전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통례이나, 이곳 적광전은 그 통례를 깨고 석굴암의 불상 형태를 그대로 따른 석가모니부처님을 모신 것이 이채롭다.



적광전 뒷면 벽화는 소를 찾아 다니는 이야기를 그린 10장의 심우도가 그려져 있다. 적광전 현판과 주련柱聯 글씨는 탄허스님의 친필이다. 주련의 녀 줄은 자장율사의 불탑계이다.

만대윤왕삼계주

萬代輪王三界主
쌍림시멸기천추
雙林示滅幾千秋
진신사리금유재
眞身舍利今猶在
보사군생예불휴
普使群生禮不休

만대의 왕이며 삼계의 주인이여
사라쌍수 열반 이래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가
부처님 진신사리를 지금 여기에 모셨으니
몹 중생으로 하여금 예배를 쉬게 하지 않으리.



적광전 현판사진



자장율사의 불탑계

1-1. 심우도

-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그린 선화



심우(尋牛) : 소를 찾아 나서다.
(처음 발심한 수행자가 아직은 선이 무엇이고 본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찾겠다는 열의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



견적(見跡) : 소의 발자취를 발견하다.
(순수한 열의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다보면 본성의 자취를 어렵פות이나마 느끼게 되는 단계)



견우(見牛) : 소를 찾다.
(본성을 보는 것이 눈앞에 다다랐음을 상징한다.)



득우(得牛) : 소를 얻다.
(이 경지를 선종에서는 견성(見性)이라고 하며, 땅 속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금강석을 찾아낸 것에 비유한다. 이때의 소는 검은색을 띤 사나운 모습으로 그려지며, 아직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에 물들어 있는 거친 상태)



목우(牧牛) : 소를 길들이다.
(삼독의 때를 지우는 단계로 선종에서는 이 과정을 가장 중요시 한다. 이때의 소는 길들이는 정도에 따라 검은색이 차츰 흰색으로 바뀌어 간다.)



기우귀가(騎牛歸家) :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
(동자가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정경을 그리고 있다. 이때의 소는 전체가 완전한 흰색을 띠고 있다. 소와 동자가 일체가 되어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구멍 없는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본성의 소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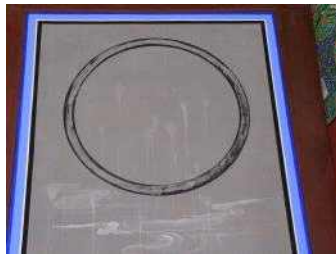
망우존인(忘牛存人) :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은 채 앉아 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애써 찾은 소는 간데없고 자신만 홀로 남은 상태를 표현한다. 결국 소는 본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고,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왔으니 그 방편은 잊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뗏목을 타고 피안에 도달했으며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교종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인우구망(人牛俱忘) : 소와 사람 모두 공(空)이라는 깨달음을 원상으로 나타내다.

(소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잊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텅 빈 원상만을 그리고 있다. 객관이었던 소를 잊었으며 주관인 동자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징한다. 이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일컫는다.)



반본환원(返本還源) :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산수풍경으로 나타내다.

(주관과 객관이 구별이 없는 속에 있는 그대로 비치는 자연의 경지르 표현한다.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 경지)



입전수수(入塵垂手) : 중생제도를 위하여 석장을 짊고 저잣거리로 나선다.

(동자가 큰 포대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때 큰 포대는 중생들에게 베풀어 줄 복과 덕을 담은 것으로,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중생제도에 있음을 상징)



2. 수광전(무량수전)



무량수전은 서방 극락정토의 교주 **아미타불**을 모신 곳으로 **수광전, 극락전** 이라고도 불리운다.

아미타(아미타(바)Amitabha 무량광無量光·무량수無量壽) 한량없다 無 의 뜻이며 미타는 수명을 뜻하니 목숨이 없는 수명의 다함이 없는 부처님이란 뜻이다. 월정사 무량수전은 상단에는 아미타부처님과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좌우에 모시고 뒤쪽으로 극락의 범회 장면을 묘사한 목각탱화 극락회상도를 모시고 있다. 중단에는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지장시왕(地藏十王) 목각탱화를 봉안하고 있으며, 하단에는 지옥의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인로왕보살님을 금선묘(金線描)의 탱화로 봉안하고 있다.

지금 무량수전은 1989년 도명스님 때 시작해 1992년 현해스님이 완공했다.



수광전 아미타불



수광전 지장보살

3. 삼성각



삼성각은 독성 나반존자, 산신님, 칠성님을 함께 모신 곳이다. 나반존자는 남인도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아 십이연기(十二緣起)를 깨달은 성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을 신격화한 것으로 신앙되고 있다. 칠성님은 본디 중국에서 유입된 도교 신앙의 신으로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신격화하여 한국에 들어와 토착화되었다. 처음에는 약사(藥師)신앙과 결합되었다가 조선 중기 이후 수명신의 본디 모습이 강조되어 병자나 자식낳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산에 호랑이가 많았으며 산을 주재하는 산악신이 있다고 믿었다. 산신님의 다른 모습은 호랑이라고 믿었으며 주로 호랑이와 같이 표현된다. 이는 모두 불교가 들어오면서 호법신장의 하나로 흡수된 것으로 불교의 포용력과 흡수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상단에 칠성탱화와 칠성조각을 모시고, 향우측으로 산신탱화와 산신평각, 향좌측으로 독성탱화와 조각을 봉안하고 있다. 1994년 현해스님 때 중건했다.



4. 조사당



적광전 뒤에 자리 잡은 **조사당(祖師堂)**은 규모가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이며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월정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의 진영(眞影)을 모신 곳이다. 자장율사의 진영은 1804년에 제작된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자장율사의 진영이 가장 오래되었으나 월정사의 자장율사 진영은 최근에 제작한 것이다. 1958년 영해당 경덕스님이 중건했으니 현존하는 월정사 당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5. 진영당



진영당은 개창주(開創主)나 중창주(重創主)와 같은 고승의 진영을 모시는 전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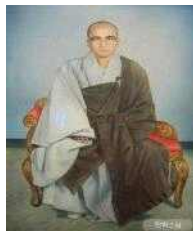
정면 다섯 칸, 측면 두 칸의 맞배지붕 형태인 월정사 진영당은 근대 월정사에 주석한 조계종 초대 종정이신 한암스님, 현대불교학의 아버지이신 탄허스님,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 지암스님, 월정사를 중건하신 만화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1975년 만화스님이 중건하고 1994년에 현해스님이 증축했다.



한암스님



탄허스님



만화스님



보문스님



지암스님



회섭스님

6. 설선당(종무소)



적광전 왼쪽에 동당으로 불리는 **설선당**이 있다.

ㄱ자 형으로 지어진 이 큰 당우는 월정사의 일반 사무, 행정을 맡아 보는 종무소이다.

규모가 커 보이나 건물의 배치가 ㄱ자 구조이며 내부에는 중정(中庭)을 두고 있다. 1979년 만화스님이 중건하고 2002년 현해스님이 전면보수했다.

7. 대강당



서당은 주요 행사나 모임이 있을때 행사장이나 수련법회장으로 쓰이며 또한 스님들의 요사채로 쓰인다.

탄허스님 때에는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講院)으로 지어졌다.

지금도 탄허스님이 쓴 대강당 현판과 큰방에는 탄허스님의 친필 액자가 걸려 있다. 정면 11칸, 측면 3칸인 ㄱ자 팔작지붕이다. 1976년 만화스님이 중건했다.

8. 범종루



범종루(梵鍾樓)는 북(법고), 종(범종), 운판(雲版), 목어(木魚) 등 사물(四物)을 두는 곳이다.

새벽예불과 저녁예불 하루에 두 번 두드린다.

북은 걸어 다니는 모든 중생을, 종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친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지옥 옥졸들이 지옥 중생들을 괴롭히다가 잠깐 쉬다고 한다. 운판은 청동이나 철로 만든 구름 모양의 넓은 판인데, 날아다니는 중생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해탈하라고 친다. 목어는 물고기 모양으로 나무의 속을 파서

만들었으며 물 속에서 사는 중생들을 위해 두드린다.

범종루 아래 있는 석경원(碩經院)에서는 불교 서적과 불구용품(佛具用品)을 판매하고 있다.

단청이 화려하며 아름다운 팔작지붕의 누각형 건축이다. 1994년 현해스님이 보수했다.



범종 : 절에서 쓰는 종이라는 뜻이다.

범종을 울리는 근본 뜻은 천상과 지옥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법고 : 짐승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친다. 나무로 된 두개의 북채로 마음 심(心) 자를 그리면서 치며 숫소와 암소의 가죽으로 양면을 각각 만드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뜻함이다.



운판 : 재당(사찰의 식당)이나 부엌 앞에 달아두고 공양시간을 알리는 도구로 쓰였다. 구름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구름이 물이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부엌에서 화재를 막는다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물과 불은 상극이기 때문이다. 또 밥이 다 되어 뜬을 들일 때 3번 치므로 화판(火版), **바리때**를 내릴 때 길게 치므로 장판(長版)이라고도 하였다.



목어 : 본래 중국의 선원에서 아침에는 죽을 먹고, 점심에는 밥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끼니를 알리는 신호기구로 쓰였던 것이다.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데 대한 근거는 없으나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옛날 어떤 스님이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죽은 뒤에 물고기가 되었는데 그 등에서 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어느 날 스승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때, 한 마리의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타나 전에 지었던 죄를 참회하며, 등에 자란 나무를 없애 주기를 애걸하므로, 스승이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 물고기 몸을 벗게 하고 그 나무로써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 달아

놓고 스님들을 경책(警責)하였다고 한다.

또 일설에는, 물고기는 밤낮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졸거나 자지 말고 늘 깨어서 꾸준히 수도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고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도 한다.

9. 용금루



용금루(湧金樓)는 본래 팔각구층석탑 가까이 있던 것을 1994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누각의 기초를 화강석 기둥으로 하였고 밑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 누마루형식의 건축으로 용금루의 계단을 한단 한단 오르면 월정사 경내가 마치 불계(佛界)와도 같이 조금씩 가까워오는 구조로 월정사의 장엄함을 경험하게 하는 구조라고 하겠다.

월정사 정보박물관 특별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으로 팔작지붕이다. 1977년 만화스님이 중건했다.



용금루 사진(뒤)



용금루 내부

10. 정보박물관(보장각)



월정사 정보박물관은 643년(신라 선덕여왕 12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고찰 월정사 경내에 자리하고 있다.

연건평 206평의 한식 팔작지붕 형태의 건물로 지상 1층, 지하 1층의 전시실에서는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를 전시 주제로 삼아 불교 문화유산들을 전시하고 있다.

1999년 10월 개관한 이후 2000년 7월 문화관광부에 불교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함으로써 강원도의 유일한 불교전문박물관이다.

월정사 정보박물관은 국보인 상원사 중창권선문을 비롯하여 보물 수타사 월인석보와 고려시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11점, 조선전기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 유물23점을 비롯하여 강원도 유형문화재 20여점, 말사에서 이운한 조선후기 불화와 불상, 전적, 근대 한암, 탄허스님의 유품에 이르기까지 약 500여점의 정보들을 소장하고 있다.

1999년 개관한 이래로 꾸준한 학술행사와 전시 등을 개최하여 2000년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유물전, 사진전을 개최하여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역사적, 미술사적 불교사적 의미와 가치를 종합적 조명했다.

2001년 “강원도 불교문화재의 종합적 검토”의 학술행사와 유물전 및 사진전에서는 오대산에 소재한 조각, 전적, 공예, 회화에 걸친 한국불교미술사에 있어서 강원도의 위치를 찾는 자리였다.

2002년 “오대산 적멸보궁의 종합적 검토”의 세미나와 사진전, 유물전에서는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기원과 발전과 신앙의 형태를 되짚음으로써 우리나라 사리신앙을 고찰하였다. 앞으로도 꾸준한 학술행사의 개최와 전시, 유물의 보수, 연구, 보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심을 통하여 불교전문박물관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1-1. 금강루(금강문)



월정사의 금강루는 사천왕문을 지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세 번째 문으로 이곳을 통과하면 경내로 들어서게 된다. 일주문, 사천왕문, 불이문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찰의 가람배치에 있어서 월정사는 불이문의 자리에 금강문을 두고 있다. 금강문의 오른쪽에는 나라연금강역사, 왼쪽에는 밀적금강역사가 있다. 이는 일체만물의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를 표현한 것으로 금강역사의 강한 힘과 지혜로 불법을 호지(護持)하고 사찰을 수호하며 불교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전면 3칸, 측면 2칸, 2층 누각으로 1997년 12월 현해스님이 착공하여 1999년 10월에 낙성했다.



나라연금강역사 : 힘이 코끼리의 백만 배나 된다고 하여 인왕(仁王)으로도 불리우고, 입을 “아”하고 벌리고 있다하여 아금강역사라고도 불리운다.



밀적금강역사 : 부처님을 호위하는 야차왕이라고도 한다. 부처님 비밀의 으뜸이 되기 때문에 비밀주보살 이라고도 하고, 입을 “음”하고 다물고 있다하여 음금강역사라고도 불리운다.

* 금강역사는 사천왕상과는 달리 조각상으로 모시는 경우는 드물다. 월정사는 채색화로 그려 놓았다.

11-2. 윤장대



월정사 윤장대

금강루의 2층에 있으며 불교경전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윤장대를 한번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한다. 이는 경전을 읽을 수 없는 일반 서민과 문맹자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월정사에서는 사찰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고, 희망하는 소원이 하루 속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원문을 작성한 후 윤장대 안에 넣고 돌리도록 성물(聖物)을 조성하였다.



용문사 윤장대

우리나라의 윤장대는 용문사의 윤장대(보물 제684호)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 명종 20년, 자엄이 조성하여 인도의 고승 구담이 가져온 대장경을 보관하였다. 전설에 의하면 이 윤장대를 돌리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며, 윤장대를 못보고 죽으면 저승에 가서도 꾸중을 듣는다고 한다.

지금은 귀중한 문화재여서 훼손 우려 때문에 1년에 두 번만 돌릴 수 있다.

- * 윤장대의 원형은 티벳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마니차(마니륜통)이다. 티벳의 불교문화가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 까지 전해지면서 형태와 용도도 바뀌게 되었다.

12. 호지각(화장실)



1999년 10월에 건립되었으며, 월정사 성보박물관 옆에 위치해 있다. 1층은 월정사 경내를 호지하는 요사채이며, 아래층은 사찰을 찾는 모든 분들의 근심을 푸는 해우소로 이용되고 있다.

13. 심검당



종무소인 해행당 뒤편에 있는 **심검당**(尋劍堂)은, 새벽 달빛이 유난히 밝아 명월당(明月堂)으로도 불리는데 월정사 노스님들이 거쳐하는 곳이다. ㄱ자 건물로서 본디 양지 바른 곳이기도 하지만 기단을 높게하여 습한 기운을 막았다. 심검은 검을 찾는다는 뜻으로서, 검은 무명(無明)을 자르는 지혜의 검을 의미한다. 1986년 도명스님이 중건했다.

14. 해행당



해행당(解行堂)은 천왕문을 지나 오른쪽에 자리하여 양지바른 곳에 있는 사무실과 방을 가지고 있는 팔작지붕 건물이다. 1978년 만화스님이 중건했다.

15. 대법륜전(공양채)

큰 법을 굴리는 집이란 뜻으로 사찰에서의 강당을 의미한다.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이룬 후 녹아원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한 역사적 사실에서 당호의 이름을 지었다. 1층에는 강당과 지하에는 공양채가 위치하고 있다.

16. 청류다원



솔잎은 흠뻑 젖고 금강연은 사납기만 한데
이름모를 보살님 들고 온 찻잔
천만겁아승지(千萬劫阿僧祇)의 불계(佛界)가 이곳이로구나.
전통한옥식 건물로 앞으로는 금강연과 전나무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으며 찻집 가운데는 군고구마와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난로가 놓여 굴뚝으로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내고 있다.
청류다원(淸流茶院)에서 그윽한 차향 온몸 가득 채우고, 월정사의 향기도 함께 느낄 수 있다.

17. 천왕문



금강교를 지나 제일 먼저 만나는 문이 **천왕문**이다.

일명 사천왕문(四天王門)이라고도 하며 대개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天王門)이 있다.

천왕문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外護) 신장(神將)을 모신 전각이다.

이 천왕들은 수미산 중턱의 동, 서, 남, 북에서 그들 무리와 살면서 인간의 선악을 관찰하며 불법을 수호한다.

1974년 만화스님이 중건했다.



동방지국천왕

수미산을 다스리는 제석천 또는 부처님이 지국천왕으로 하여금 동방에서 불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여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을 맹세하였다고 한다.

비파를 들고 있어 어둠속의 중생들을 음악으로 인도한다는 뜻을 가진다.



서방광목천왕

수미산 중턱의 서쪽에 주처가 있는 천왕이다.

지물로는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은 하늘에서 구름, 비, 천둥 등을 부리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양손에는 용과 용의 입에서 빼낸 여의주를 들고 있으며 만물을 소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남방중장천왕

수미산 중턱의 남쪽에 있는 유리라는 지방을 관장하는 천왕이다.

이 천왕의 지물은 칼(보검)을 들고 있어 악한 사람을 응징하며 조각상 밑을 보면 악귀들을 밟고 있는 형상을 볼 수 있다.



북방다문천왕

수미산 중턱의 북쪽을 관장하는 천왕이다.

두루 많이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천왕은 불교에 흡수되면서 야차와 나찰을 부하로 부리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불법을 수호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다. 지물로서는 오른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왼손에는 보탑 들어 악을 구도하고 열반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을 지닌다.

*사천왕은 본래 인도의 토속신이었으나 부처에 귀의하여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명의 사천왕 모습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18. 일주문



절에 들어설 때 맨 먼저 만나는 것이 **일주문**이며 여기부터 절 경내임을 알리는 문이다. 절의 어귀에 서 있어 절의 위용을 한눈에 느끼게 해주는 일주문은 모든 중생이 자유롭게 드나들라는 의미에서 문을 달지 않는다.

기둥을 양쪽에 하나씩 세워 문을 지탱하는 구조에서 일주문이라는 이름이 유래했으나 두 기둥을 일직선상에서 세웠다는 의미도 있다. 대개 일주문은 아름답리 기둥을 깎아 당당하게 세우거나 자연스런 나무 등치의 모습을 살려 위용을 더하기도 한다.

월정사 일주문은 다포계의 공포로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시각 효과를 이루었고 단청이 화려하다. 기둥 양편으로 판전을 붙여 안정감을 높였고 판전에는 네 분의 재미있는 신장상을 양각하였다. 기둥 양옆으로 셋기둥을 세워 시각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둥글게 다듬어 모양을 내었다. 기초는 화강석으로 복련을 조각하였다. 월정사 일주문은 전체적으로 웅장한 오대산과 잘 어울린다.

월정대가람(月情大伽藍)의 현판글씨는 탄허스님의 친필이다. 1976년 만화스님이 중건했다.

19. 팔각구층석탑



월정사의 본당인 적광전의 앞뜰 중앙에서 조금 비껴난 자리에 **팔각구층석탑**이 서 있다.

팔각구층석탑은 연꽃 무늬로 치장한 이층 **기단부**와 균등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신부**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금동장식으로 장엄한 **상륜부** 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뛰어난 석탑이다.

신라의 자장율사가 세웠다고 하나, 그 무렵의 탑들은 평면 정방형에 삼층 또는 오층의 탑으로 이루어진 것에 견주어, 이 탑은 평면이 팔각형이며 탑의 층수도 구층에 이르는 늘씬한 자태를 이루어 고려시대의 석탑양식을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탑은 전체를 화강암으로 조성하고 상륜부에 일부 금동장식을 더하였는데 여러 차례의 화재로 손상을 입은 부분이 더러 있으나 오늘날 까지도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해 오고 있다. 기단은 아랫층 각면에 안상을 새기고 연꽃 장식을 베풀었다.

그 위로는 괴임돌을 놓아 윗층 기단을 정성스레 받들어 기단 전체가 마치 부처님의 연꽃대좌처럼 장식되었다. 그 위에 탑신을 받았으니 탑신은 곧 부처님이다. 탑신 안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으니 불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이나 다름없고 그러한 진신의 부처님이 연꽃대좌 모양의 기단 위에 계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기단 위에는 부처님을 앉히기 위한 방식과 같은 석재를 별도로 끼웠으며 탑 앞의 석조보살좌상도 부처님과 같은 탑 앞에서 공양하는 자세를 하고 있었다. 탑신은 각 층마다 줄어듬이 적고 층수는 구층을 헤아려 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 오르는 느낌을 더해주고 있다. 팔각은 불교의 실천수행에 기본이 되는 팔정도(八正道)를 상징한다.

층마다 돌과 지붕돌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지고 일층의 사면에는 네모난 감실이 하나씩 있는데, 남면의 감실이 가장 크며 문틀을 단 흔적도 있다.

몸돌은 모서리마다 귀기둥이 새겨지고 끝은 밑면이 수평이고 위는 곡면으로 처리하여 추녀 끝이 살짝 위로 솟아 가뜩해 보이며 추녀 끝마다 풍탁이 달려 탑은 언제나 바람의 향기를 음미한다. 흐트러짐이 없는 정연한 상륜은 보탑의 격조를 한층 더하여 주며, 여기에 금동장식을 더하여 탑 위에 보관을 얹은 듯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리하여 보탑의 절정부는 세련된 조형미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여러번의 화재로 인하여 1970년 해체보수를 통하여 **1층, 2층, 6층, 9층**을 새 돌로 갈았으며 그 당시에 **1층과 5층**에서 총 12점의 사리구가 발견이 되었다. 은제의 불상 1구와 4점의 청동거울, 금동향합과 향주머니, 진신사리경 등의 총 12점의 유물들은 2003년 6월 보물로 일괄 되었다. 또한 2000년 8월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보수공사시에 지하 1m 아래에서 탑의 기단부로 보이는 또 하나의 유구가 발견이 되어 학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팔각구층석탑은 높이 15.2미터로 우리나라의 팔각석탑으로는 가장 크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서도 단연 으뜸이며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경의 작품이며, 국보 제48호.

20. 석조보살좌상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팔각구층석탑 앞에는 그 탑을 향하여 오른쪽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으고 공양을 드리는 모습을 한 **석조보살좌상**이 있다.

입에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고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보살상을 일명 약왕보살(藥王菩薩) 이라고도 한다.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조성된 이 보살은 턱이 약간 길고 눈두덩이 두껍고 뺨은 도톰하며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어 복스럽게 느껴진다.

머리위에 높다란 원통형관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관 옆에 작은 구멍이 얇게 파져 있는 것으로 보아 관에 장식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보발(寶髮)은 양 어깨의 앞과 뒤로 단정하게 드리워져 있고, 두 귀는 보발(寶髮) 등으로 살짝 감추어져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를 새기고 앞가슴은 영락으로 장엄한 채 두손을 가슴 앞에 모아 무엇을 잡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아준 두 손 사이에는 무엇인가 걸려 있었던 흔적으로 보아 향몽치나 손잡이가 달린 향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금 아래로 내려 놓은 오른쪽 팔꿈치는 아래에 받침을 괴었는데, 재미있게도 이 받침은 동자상이다.

21. 수각(불유각)



시원한 감로수(甘露水)를 제공하고 있다.
큰 석확안으로 세조가 피부병을 낳고자 등을 씻었던 물이
종기로 유명한 오대산의 샘물이 솟고 있다.



현판사진 1



현판사진 2



현판사진 3

22. 요사채(세면장)



월정사의 종무원이 기거하는 요사채이다. 맞배지붕의 일자형
집으로 단청이 없는 소담한 집이다.
지하에는 최신시설의 세면장이 갖추어져 있다.

23. 전나무숲



일주문을 지나 월정사를 향해 걷다 보면 좌우에 아름답리 큰 전나무숲
을 지나게 된다.

팔백미터쯤 늘어선 전나무는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준다. 장쾌하게 쪽쪽
뻗은 전나무는 짙은 그늘을 드리우지만 별이 잘 들어 음습하지 않다.
오대산은 기온이 낮아 모기가 없고 지질학적으로 바위 대신 흙이 많다.
또 여느 산에 많이 있는 소나무가 거의 없고 그 대신 전나무가 유난히
많다. 특히 큰 전나무 아홉그루는 '아홉수'라 하여 많은 전나무의 기원
이 된다. 원래 전나무숲길은 월정사 진입로였으나 아름다운 전나무숲
길을 가꾸고 보존하기 위하여 월정사 진입로를 우회시킴으로써 지금은
많은 연인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관광의 명소가 되었다

II-1. 상원사



월정사에서 서북쪽으로 구 킬로미터쯤 더 오르면 오대산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상원사가 있다. 산내 암자이기는 하나, 신라의 보천, 효명태자와 조선의 세조 임금이 관련되어 역사적인 내력이 깊은 사찰이다. 나라 안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선원으로서도 널리 알려져, 일찍부터 월정사 산내 암자에 그치지 않는 명성을 누려 오고 있다. 특히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멀지 않은데도 깊은 산사의 숙연한 분위기가 매우 뛰어나, 참선수행으로써 본래의 참면목을 깨우치려는 눈 푸른 수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사는 신라 성덕왕 4년(705)에 신라의 보천(寶川)과 효명(孝明) 두 왕자에 의해 오대산 중대에 창건되었는데, 처음 이름은 진여원(眞如院)이었다. 자장율사가 개산한 뒤로 오대산이 불교 성지로서 그 이름을 빛내면서 마침내 오류성중(五類聖衆) 곧 다섯 부류의 성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신앙화되기 시작하던 즈음이다. 이 때의 창건 설화를 '삼국유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신라 신문왕의 아들 보천태자는 아우 효명과 더불어 저마다 일천 명을 거느리고 성오평(省烏坪)에 이르러 여러 날 놀다가 태화(太和) 원년(元年)에 형제가 함께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형 보천태자는 오대산 중대 남쪽 밑 진여원 터 아래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아우 효명은 북대 남쪽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 곳에 풀로 암자를 짓고 살았다. 두 사람은 함께 예배하고 염불하면서 수행하였으며 오대에 나아가 공경하며 참배하던 중 오만의 보살을 친견한 뒤로, 날마다 이른 아침에 차를 달여 일만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 이 때, 신문왕의 후계를 두고 나라에서 분쟁이 일자 사람들이 오대산에 찾아와 왕위를 이을 것을 권하였는데 보천태자가 한사코 돌아가려 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효명이 사람들의 뜻을 좇아 왕위에 올랐다. 그가 성덕왕(聖德王)이다. 왕이 된 효명태자는 오대산에서 수도하던 중에 문수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 보이던 곳에 진여원을 개창하니 이 곳이 지금의 상원사이다.

고려시대에는 상원사가 어떠한 중창의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밝히는 자료는 없으나 이색(李穡)의 '오대 상원사 승당기(五臺上院寺僧堂記)'에는 고려말 '나옹스님의 제자라고 알려진 영로암(英露庵)이라는 스님이 오대산을 유람하다가 터만 남은 상원사를 중창하였다'고 적혀있다.

고려말부터 일기 시작한 척불정책은 조선시대에 들어 더욱 거세어져 불교는 극박한 박해를 받기에 이르렀다. 태종은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고 11종(宗)이던 불교 종파를 7종으로 통합하는 등 척불에 앞장섰으나 만년에는 상원사 사자암을 중건하고 자신의 원찰로 삼았다. 또 나아가서는 권근(權近)에게 명하여 '먼저 떠난 이의 명복을 빌고 후세에까지 그 이로움이 미치게 하여 남과 내가 고르게 불은(佛恩)에 젖게 하라' 고 하였다. 이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불교에 귀의하여 그 잘못을 참회하기 위해 많은 불사를 행하였으며 나라에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하여 불서의 간행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세조는 오대산에서 두 번의 이적을 체험하였다. 지병을 고치려고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나서 병이 나았고, 상원사 참배 중에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일화가 그것이다. 이렇듯 세조와 상원사는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1984년에 발견된 문수동자 복장에서는 세조의 딸 의숙공주가 문수동자상을 봉안한다는 발원문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다. 근세에는 방한암 스님이 오대산으로 들어온 뒤로 상원사에서 이십칠 년 동안 두문불출하며 수도 정진하였으며 수련소를 개설하여 후학 양성에 진력하였다. 오늘날에도 전국에서 선남선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불교 성지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청량선원



청량선원(淸涼禪院)은 오대산을 다른 이름으로 청량산이라고도 하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다.

이 선원은 1947년 월정사 주지 이종욱 스님이 금강산 마하연의 건물을 본떠 지었다. 동북 45도 방향의 이 선원은 정면 8칸, 측면 4칸의 ㄱ자형 건물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신미대사의 발원에 따라 세조가 상원사를 왕실의 원당(願堂)으로 삼으려고 학열스님에게 친히 불사를 주관하게 했다.

학열스님은 세조 11년(1465)에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동서불전(東西佛殿)**을 비롯하여 **누각, 나한전, 청령당, 승당, 선원** 등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 법당은 1946년 선원 뒤에 있던 조실(祖室)에서 실화로 전소되자, 1947년 새로 지은 것이다. 6. 25 전쟁 때 군인들이 법당을 불 태우려 하자 방한암 스님이 목숨을 내걸어 지킨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선원 안에는 목조 문수동자상(국보 221호), 문수보살, 서대에서 옮겨온 대세지보살상, 그리고 문수동자좌상의 복장에서 나온 유물(보물 제793호)들이 전시되어 있다.

영산전



영산전은 선원 뒤에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1946년 화재가 났을 때 유일하게 불길을 모면한 덕분에 오대산 안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 석가 **삼존상**과 **십육 나한상**을 봉안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영산전이라 한다. 조선 세조가 희사한 **39함(函)의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다.

이 장경은 본래 다섯 짚을 인행(印行)하여 삼보사찰과 설악산 오세암 그리고 상원사에 봉안한 것이데, 오세암의 장경은 소실되었고 통보사, 해인사, 송광사의 삼보사찰과 이 곳에만 보존되어 있다.

II-2. 상원사 문화재

1. 상원사 동종



현존하는 한국 종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우며 청아한 소리 또한 이루 비길데 없는 이종은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조성되었다. 조선 태종 때 불교가 박해를 받을 때 안동으로 옮겨졌다가 조선 예종 원년(1469)에 상원사에 다시 옮겨진 것으로, 한국 종 고유의 특색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표적 범종이다.

음통(音筒)이 있는 용뉴(龍鈕) 아래 종신은 약간 길쭉하게 배를 불리다 끝에서 안으로 살짝 오므라든 형태가 이상적인 비례감과 안정감 있는 조형미를 이루었고, 풍부한 양감과 함께 세부적인 묘사 수법이 사실적이다.

종신(鐘身)에 있는 상대, 하대, 4유곽(乳廓)의 문양은 당초문을 바탕으로 2~4인의 작은 주악비천상(奏樂飛天像)이 있는 반원권문(半圓卷紋)이 새겨졌고, 종복(鐘復)에 비천상과 교대로 있는 당좌(撞座)는 8판연화문(八瓣蓮花紋)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비천상은 경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구름 위에서 천의(天衣) 자락을 휘날리는 모습이 나 또 공후(箜篌)와 생(笙)을 연주하는 손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볼록한 두 뺨, 유연한 신체에 걸친 천의 등은 8세기 전반의 이상적인 사실풍의 불교 조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상에는 약동하는 용이 있고 그 옆에는 연꽃이 조각된 음통이 붙어 있다.

용뉴 좌우에는 70자에 달하는 명문이 해서체로 음각되었는데 첫머리에 '개원 십삼년 을축 3월 8일 종성기지(開元 十三年 乙丑 三月 八日 鍾成記之)'라고 되어 있어,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원사 종에 보이는 음통, 종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든 종신형(鐘身形), 상대와 하대 및 4유곽 등의 구조적인 특징은 한국 종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어 이후의 모든 종이 계승되었다.

상원사 동종에 얽힌 일화가 전해지는데, 이 종의 소재 사명(寺名)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선 초기에는 경북 안동 본부(本府) 문루(門樓)에 걸려 있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종은 안동 근처의 어느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가 태종이 불교를 박해할 때 안동 문루로 옮겨졌다고 한다. 세조 때 상원사에 봉안할 종을 팔도에서 찾고 있던 중 안동에 있던 이 종이 선정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세조가 승하한 직후인 예종 원년(1469)에 상원사에 도달했다고 한다.

종을 안동에서부터 상원사로 옮겨오던 중에 3,379근(斤)이나 되는 큰 종이 장차 죽령(竹嶺)을 넘어려 하는데 노상에서 움직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종꼭지를 하나 떼어서 안동으로 보내니 비로소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전설을 입증하듯 네 곳의 유곽 안에 1곽(廓)의 종유가 하나 없다. 이러한 고사는 대중 운반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만 민속신앙의 한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국보 제36호.

2-1. 문수동자상



문수동자상은 상원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 상이 바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임을 가리키는 중요한 동자상이다. 옛날 상원사 화재 때에도 선객들이 이 동자상을 불길로부터 구해내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유명한 상이다.

문수동자상은 나무로 조성된 불상으로, 보관이 없는 머리는 양쪽으로 묶어 올리고 앞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 이마를 가렸으며 얼굴은 양볼을 도톰하게 하여 천진해 보인다. 이목구비는 온화하고 적당히 가는 목에는 삼도(三道)가 보인다.

가슴에는 영락이 달린 목걸이를 걸치고 오른쪽 가슴 쪽으로 치우쳐 드러난 통견의 천의를 걸치고 가슴 밑으로 띠를 매었는데 옷주름이 명확하다.

손모양은 오른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왼손을 내려서 엄지와 약지를 맞닿 듯한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을 하고 있으며, 왼쪽 다리는 안으로 접고 오른쪽 다리는 밖으로 둔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이 불상은, 조각 수법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1984년 7월 문수동자상에서 조성발원문 등 23점의 복장(腹藏)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이 불상이 조선 세조 12년(1466)에 조성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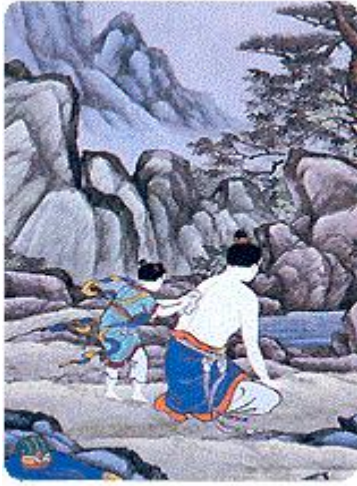
고려시대 불상에서 조선 전기 불상으로 전개되는 불상조성 양식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또 발원문과 함께 나온 조선시대 초기의 의상과 다수의 불경은 조선 복식사 및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상에서 발견된 23점의 복장유물은 불상에도 사리를 보장하고 복장을 만들어 넣는 매우 드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유물로는 의숙공주발원문, 문수상등중수발원문, 백지묵서진언집(白紙墨書眞言集), 두루마리 대방광불 화엄경, 오대진언, 묘법연화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육경합부, 명주적삼, 생명주적삼, 금동제 사리함, 사리, 수정구슬, 백색수정 사리병, 세조의 어의(御衣)를 쓴 노랑색 명주 보자기 등이 있으며 월정사 정보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이 문수동자상은 조선 세조대왕이 직접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크기는 98센티미터이며, 국보 221호.

2-2. 세조와 문수보살 이야기



문수동자가세조의 등을 밀어주는 모습

세조는 즉위 기간 내내 조카인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만년에는 단종의 어머니이며 형수인 현덕왕후의 혼백에 시달려 아들 의경세자가 죽자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패륜을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덕왕후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 피부병에 걸렸다. 전신에 종기가 돋고 고름이 나는 등 잘 낫지도 않고 견디기가 무척 힘든 병이었다.

세조는 명 의와 명 약으로도 효험을 보지 못하자 오대산으로 발길을 돌려 부처님께 참회기도를 올려 낫기를 발원하였다.

세조가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어느 날, 오대천의 맑은 물이 너무 좋아 혼자 몸을 담가 목욕하고 있었다. 그 때 지나가던 한 동자승에게 등을

밀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동자승이 등을 밀자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다.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자승에게 "그대는 어디 가든지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 동자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왕은 어디 가든지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세조가 놀라 주위를 살피니 동자승은 간 곳 없고 어느새 자기 몸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을 알았다. 이렇듯 문수보살의 가피로 불치병을 치료한 세조는 크게 감격하여 화공을 불러 그 때 만난 동자의 모습을 그리고, 목각상을 조각하게 하니 이 목각상이 바로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이다. 지금은 문수동자의 화상은 없어졌으나 목각상은 상원사 법당에 모셔져 있다. 세조가 당시 친견한 문수보살의 모습을 그리려고 많은 화공을 불렀으나 잘 그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누더기를 걸친 노스님이 와서 자신이 그려 보겠다고 했다. 세조가 이러저러한 모습을 설명해 주자 노스님은 자신이 알아 그리겠다고 설명도 듣지 않았다.

이윽고 그려온 문수동자승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아 세조는 놀라고 기쁜 마음에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자 노스님은 "나는 영산회상에서 왔습니다" 하고는 곧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결국 세조는 문수보살을 두 번이나 친견한 것이다.**

3. 고양이 석상



상원사 법당 앞에 있는 **고양이 석상**은 조선 **세조 임금**과 관련 있다. 하루는 세조가 기도하러 상원사 법당에 들어가려 하자 고양이가 나타나 세조의 옷소매를 물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세조는 법당 안팎을 샅샅이 뒤진 끝에 불상을 모신 탁자 밑에서 세조를 죽이려는 자객을 찾아냈다.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세조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상원사 고양이를 잘 기르라는 뜻에서 묘전(猫田) 하사했다. 그래서 예부터 상원사를 중심으로 사방 팔십 리 땅이 모두 상원사 땅이었다.

4. 영산전 탑



이 석탑은 본래 지금의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계곡에 있던 폐탑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도 하고 **영산전** 옆에서 출토됐다고도 전한다. 단층 기단 위에 세운 5층 석탑으로 추정되나 화장암 석재가 많이 없어져 자세히 알 수 없다.

1개의 판석으로 이루어진 하대석은 20엽(葉)의 복련이 조각되어 있고 갑석에도 복련이 조각되어 있다.

탑신부는 삼존불을 비롯한 불보살을 가득 새겨 매우 호화로우며 옥개석은 1층만 남아 있는데 거의 파손되었고 층급은 나타내지 않았다. 조성기는 확실치 않으나 학계에서는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5. 관대걸이



상원사는 세조와 관련된 설화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관대걸이다. 상원사 주차장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길 옆에 서 있는 관대걸이는 조선 세조대왕이 이 곳에 의복을 벗어 걸고 목욕하여 병이 나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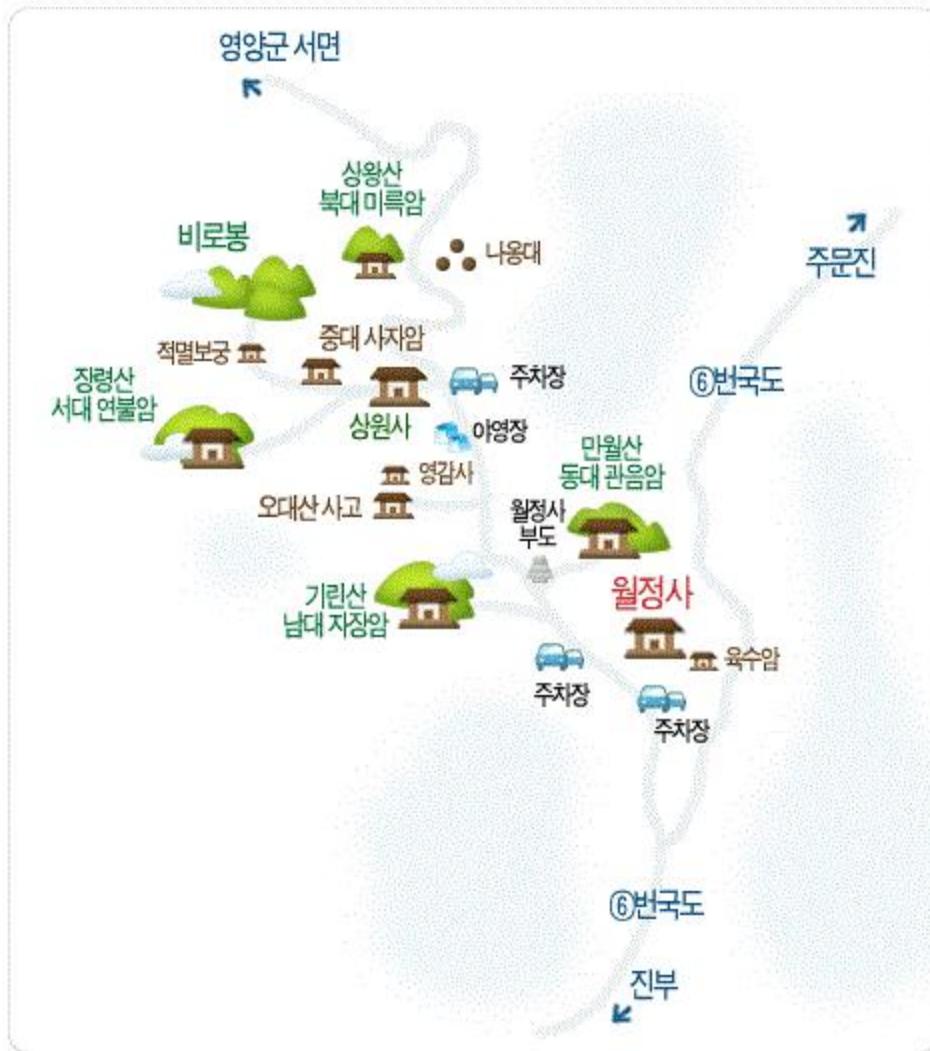
세조가 목욕을 하려고 의관(依冠)을 벗어 이곳에 걸었다고 하여 '갓걸이' 또는 '관대(冠帶)걸이'라고 부른다.

6. 상원사 부도



관대걸이를 지나 백오십미터쯤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 숲속에 상원사 부도가 있다. **방한암스님**, **탄허스님**, **만화스님** 등 세분의 부도를 모셨고 옆에는 탑비가 있다. 이 부도들은 세분 스님들이 오대산에 머물면서 불법 흥포와 가람 수호에 진력한 것을 기리기 위해 문도들에 의해 세워졌다.

Ⅲ. 암자



< 그림. 오대산 월정사지구 사찰 배치도 >

1. 동대 관음암



월정사에서 큰길을 따라 상원사 쪽으로 4백여 미터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작은 골짜기와 함께 산길이 있다. 이 길을 따라 2킬로미터 가량 올라가면 자그마한 동대 관음암이 나타난다.

관음암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대산의 동대에 일만의 관세음보살이 머물러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신라시대 보천태자는 임종 직전에 “동대에는 관음방을 두어 일만 관음상을 그려 봉안하며 금강명경, 인왕반야경, 천수주를 독송하고, 관음예참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원통사(圓通社)라 하라”고 일렀다.

이 관음암이 자리한 뒷산이 만월산(滿月山)으로 월정사(月精寺)의 ‘월(月)’이 이 산에서 유래하였다. 이 곳 동대 만월산은 그 이름처럼 달 뜨는 모습이 천하제일이다. 오랫동안 내려온 도량이었으나 6.25 전쟁 때 불타 없어져 1971년 새롭게 중건하였고 1996년 월면(月面) 화상이 오래된 요사채를 헐고 새롭게 불사를 하였다.

◎ 구정선사 토굴

동대 관음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토굴이 하나 있다. 이 곳이 바로 유명한 구정선사가 출가하여 공부하던 곳이다. 구정선사는 무엇보다도 출가 수행자에게 하심의 본보기를 보여 주는 일화로 특히 유명한 분이다.

옛날 비단 장사를 하며 살던 한 청년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한 노스님이 길가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청년이 “스님 이 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내 몸의 피를 빨아먹는 이들의 공양시간이라, 피를 잘 빨아먹으라고 가만히 있지” 하였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노스님은 갈 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스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노스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었다.

행자생활을 하던 때였다. 하루는 노스님이 술을 새로 걸어야겠다며 행자에게 그 일을 맡겼다. 정성스럽게 술을 건 행자가 “술을 다 걸었습니다” 하자, 노스님은 “이 곳이 삐뚤어졌으니 새로 걸어라” 하고는 그냥 들어가 버렸다.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조금도 틀어진 곳이 없건만 행자는 다시 술을 걸었다. 그렇게 술을 걸고 허물기를 무려 아홉 번 하고 나서야 마침내 노스님에게서 “바로 걸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행자는 술을 아홉번 걸었다 하여 구정(九鼎)이라는 범명을 받아 큰 도를 이루었다. 그 때의 노스님은 통일신라의 선지식 무염(無染)스님이었다.

자신의 마음을 늘 낮추는 겸허한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행자의 참된 모습이기 에 구정선사의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수행자 사이에서 회자되는 참된 법문이다.

2. 서대 염불암



상원사에서 중대 사자암으로 오르다 보면 왼쪽으로 자그마한 길이 하나 있다. 이 길을 따라 40여 분쯤 올라가면 조그마한 우물이 있는데 이것이 한강의 발원인 **우통수** (于筒水) 이다.

빛깔과 맛이 특이하며 무게도 보통 물보다 무겁다. 사람들은 우통수의 빛과 맛이 변하지 않음이 마치 중국 양자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뜻에서 중냉(中冷) 이라 부른다.

여러 줄기의 냇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지만 중냉의 물맛은 다른 물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찬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고사가 있다. 그 옆에 자그마한 너와지붕의 **서대 염불암** 이 있다. 암자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데 지금은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의 토굴처로 이용되고 있다. 장령산(長嶺山) 아래 자리잡은 이 암자는 옛날에는 **수정암(水精菴)** 이라 했는데, 월정사(月精寺)의 '정(精)'이, 이 암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신라의 보천, 효명 태자가 이 곳에서 수도하며 날마다 우통수의 물을 길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고 하며, 무량수불을 주불로 하여 **일만의 대세지보살**님이 계신다는 곳이다.

3. 남대 지장암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큰길로 200미터쯤 가다 보면 오대천을 가로지르는 **지장교(地藏橋)**가 나온다. 이 다리를 건너 200미터 가량 들어가면 조용하게 자리잡은 암자가 있는데 바로 **남대 지장암**이다. 본디 **지장암**은 기린산 정상 가까이 있었는데 뒤에 '**중부리**'로 옮겼다가 조선조 말에 지금 자리에 터를 잡았다.

남대 기린산 기슭에 자리한 지장암은 그 기원이 오대산 신앙의 문을 연 보천태자로 거슬러 올라가니 '삼국유사'에는 "남대의 남쪽에는 지장방을 두어 팔대보살을 수반으로 일만의 지장보살 모습을 그려 봉안하고 지장경과 금강반야경을 독송하게 하고 ... 금강사(金剛社)라 하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하나의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않으면 나 또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지옥중생의 해탈을 위하여 노력하는 분이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정면 6칸, 측면 3칸의 **인법당(因法堂)**을 비롯하여 **삼성각, 육화료, 요사채** 등이 있으며 1995년에는 기린선원을 새롭게 중창했다. 현재 비구니 스님의 참선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4. 북대 상두암(미륵암)



상원사 입구에서 큰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4킬로미터 가량 올라가면 길 왼쪽으로 상왕봉 중턱에 있는 자그마한 암자가 북대(北臺) 상두암(象頭庵) - 미륵암이다. 멀리서 보면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상두암의 창건은 보천태자의 유언에 따라 이루어졌다.

석가모니불을 수반으로 한 오백나한(五百羅韓)을 모시는 곳으로서 이 곳에 나한당(羅漢堂)을 지으라고한 태자의 유언에 따라 절을 세우고 이름을 백련사(白蓮社)라 하였다.

그 뒤 수 백년 동안 나한도량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이 암자의 이름이 중간에 바뀐 이유는 기록에 없지만 나옹스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귀국한 나옹스님은 1360년 가을 오대산으로 들어와 북대에 머물렀다. 그때 북대는 상두암이라 불렸다. 그즈음 승려들이 북대에 있는 16나한상을 상원사로 옮기기로 결의 하였다.

그러나 무거운 나한상을 십리도 더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나옹스님이 그 때 혼자서 모두 옮기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옮기기로 한 날의 저녁이 다 되어 가자 나옹스님은 나한전으로 들어가 "이 화상이 업어서 옮겨 주기를 기다리는가" 했다. 그러자 나한상들이 스스로 일어나 차례로 상원사로 날아갔다. 그러나 상원사로 가서 보니 15나한만이 도착해 있었다.

나머지 한 나한상의 행방을 찾아나선 스님들이 칩녕굴에 걸려 있는 나한상을 발견하고 모셔 왔다고 한다. 이에 나옹스님은 오대산 산신을 불러 이운불사(移運佛事)를 방해한 칩녕굴을 오대산에서 몰아낼 것을 명하니 이때부터 오대산에는 칩녕굴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로 고려말까지 북대에 나한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후대에 미래의 주불(主佛)인 미륵보살(彌勒菩薩)로 바뀌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지금의 법당은 육이오 전쟁 뒤에 중건한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지붕은 너와로 덮여있다. 너와는 이 곳에 자생하는 참나무로 추위에 의한 동파(凍破)가 없고 비와 바람에 강해 몇 십년은 끄떡없이 견딘다. 숲이 울창하여 해발 1,300미터가 넘는 이 곳은 한국 최대 자생화의 보고(寶庫)이기도 해서 식물 학자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봄에 눈 속을 뚫고 솟아오르는 복수초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심어 주기에 손색이 없다. 아울러 이 곳은 오대산 안에서도 물맛이 가장 좋기로 이름나 있다.

법당 안에는 1996년 하안거 결제전에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의 부처님 고행상을 본떠 만든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5. 중대 사자암



상원사에서 적멸보궁 오르는 길로 이십 분쯤 걸으면 돌 계단과 흙길이 사람을 반긴다. 단풍나무가 곱게 핀 길가에 중대 사자암이 있다.

중대 사자암은 비로자나불을 주불(主佛)로 하여 일만의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다. 자그마한 앞마당에는 방한암 선사가 심었다는 단풍나무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중대향각이라고 쓴 현판 옆에는 기문(記文)과 현판들이 있어 옛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6. 적멸보궁



적멸보궁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다.

적멸보궁은 모든 바깥 경계에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번뇌가 없는 보배스런 궁전이라는 뜻이다.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이 없으니 괴로울 것이 없는 부처님의 경지를 나타낸다. 또한 적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 법당 안에는 따로 부처님상을 조성하지 않고 불단만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는 다섯 군데의 적멸보궁이 있다.

오대산 적멸보궁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교의 성지이다.

중대에 위치한 적멸보궁은 오대산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산맥들이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중앙에 우뚝 솟아 있다. 적멸보궁이 자리한 곳은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라 하여 용의 머리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 곳을 방문하고 천하의 명당이라고 감탄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곳 중대는 또한 오대산 오만보살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 곧 동대의 일만의 관음보살, 남대의 일만의 지장보살, 서대의 일만의 대세지보살, 북대의 오백 나한들이 중대 적멸보궁의 불사리(佛舍利)를 법신불로 상징하여 예배 공양을 하고 있다. 법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불사리를 모신 곳이라 불상이 안치되어 있지 않고 불단만 조성되어 있다.

전면 중앙문에만 두 짝 판장문을 달았고 좌우 칸에는 중방을 설치하여 상부에는 띠살의 하개교창을 달았으며 하부는 판장벽으로 되어있다. 지방 유형문화재 제 28호이다.

* 5대 적멸보궁 : 오대산 적멸보궁, 경남 양산 통도사, 인제 봉정암, 영월 법흥사, 정선 정암사

용안수(龍眼水)

중대사자암 향각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적멸보궁을 가노라면 길 왼편에 천연수가 솟아 오르는 곳이 나온다. 이곳을 용안수라 한다. 적멸보궁이 자리한 곳이 용의 머리 부분이고, 우물이 있는 곳이 용의 눈에 해당된다 하여 이름을 용안수라 하였다. 산기슭 너머 또 다른 우물이 있어 용의 두 눈을 형성하고 있다.

7. 영감사와 사고



신령스런 거울이라는 뜻의 영감사는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가는 2킬로미터 지점에서 서북쪽으로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남호암(南虎巖) 기슭에 있다. 이 곳은 물, 불, 바람의 삼재(三災)가 침입하지 못하는 길지로 꼽힌다.

임진왜란 뒤 실록 보관을 위하여 걸립할 때에 실록각, 궁중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각, 별관, 그리고 사고를 지키기 위해 영감사가 세워졌다.

옛날 영감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지금의 영감사 건물 앞 100미터 지점에 있었는데 6.25전쟁 때 아군에 의해 사고, 선원각과 함께 불타 지금은 그 터에 주춧돌만 남아 있고, 1960년 후반 비구니 뇌묵스님이 실록각이 있던 자리에 다시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감사 아래 있는 **오대산 사고(史庫)**는 조선 후기 오대 사고의 하나인 외사고로 설치된 것은 **1606년(선조 39년)** 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605년 10월 재인쇄된 실록의 초고본을 봉안할 장소로 오대산 상원사를 선정하였다가, 다시 월정사 부근에 사각(史閣)을 건립하여 초고본 실록을 보관하였다.

오대산 사고의 수호사찰인 월정사는 사고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므로 실제로 암자격인 영감사에서 수호하기 때문에 **영감사**를 일명 **사고사**라 하였다.

오대산 사고의 실록 봉안은 태조대부터 명종대까지의 실록 초고본을 1606년 봉안한 뒤 1805년(순조5년)에 '정조실록'을 봉안하기 까지 59회 가량 행해졌다. 오대산 사고 실록을 수호하는 총섭은 월정사의 주지였다. 설치시 **수호군(守護軍) 60명, 승군(僧軍) 20명**이 수직(守直) 하였다.

1910년 국권을 잃은 뒤 오대산 사고의 서책은 **이왕직(李王職) 도서관**에서 관리하였다. 그 뒤 이 도서는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강제로 접수하여 1913년 10월 동경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으로 옮겨 놓았다. 당시 도서를 운반했던 촌노에 따르면 실록을 마차에 싣고 진부로 옮겼다가 다시 강릉으로 옮긴 후 배로 일본으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실록은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버리고 마침 대출되었던 마흔 다섯 책만이 화를 면했다. 그리고 소잔본(燒殘本) 이십칠 책은 경성 제국대학에서 옮겨와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사적 제37호(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8. 육수암



월정사로 들어오다 사천왕문에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오 분쯤 걸으면 다소 산사 분위기와는 벗어난 현대적인 건물이 보이는데 이 곳이 **육수암**이다.

지금은 **비구니 스님의 참선도량**으로 쓰이고 있다.

만월산 끝자락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았고 주변에는 봄, 가을에 걸쳐 많은 야생화가 피는 한가로운 도량이다.